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5. Vol. 16. No.1. pp. 421-448

초기 청소년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교환경과 학구를 중심으로

김 경 집*

초 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폭력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가족적 특성,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심리적 학교환경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또래폭력을 경험하는 학생이 48.9%로 나타났으며, 가해피해집단의 학생이 41.6%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가족, 학교환경이 학생의 또래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셋째, 학교유형 및 학구에 따라 학교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넷째, 또래폭력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충동성, 학교유형별 차이가 나타났고,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피해자의 표적행동 소유 여부와 폭력 허용적 환경이었다.

주제어 : 학교폭력, 또래폭력, 사회심리적 학교환경, 학구

*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Ⅰ. 서 론

학교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필요한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초기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갖는 특성들은 당시의 생활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대인관계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본틀이 된다. 그러나 최근 학교는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왕따나 집단괴롭힘,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이 일반화되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일진회로 대표되는 학교폭력의 양상이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조직 최초 가입시기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39.4%와 34.4%로 나타나 학교폭력 양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연합뉴스, 2005. 4. 6). 이에 대해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선도·단속을 목적으로 한 스쿨폴리스(School police·학교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매일경제, 2005. 4. 30), 학교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교내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로 학생이고 폭력의 주요공간이 학교라는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주요한 양상인 또래간의 폭력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변형된 형태의 공권력을 투입하여 억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또래폭력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학교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래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폭력의 발생원인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에 기반해 분석하고 있다(Berstein & Watson, 1997; Rigby & Slee, 1993). 즉,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경험한 성장기에서의 애착관계, 자존감, 신체적 특성, 공격성 등의 차이가 폭력의 발생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또래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그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상관없이 개인적 성향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학생은 학교라는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래폭력 또한 학교라는 맥락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상균, 1999; Kasen, Johnson, & Cohen, 1990; Williams, Stiffman, & O'Neal, 1998)은 또래폭력의 발생이 단순히 개인적 특성요인뿐만 아니라 학교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학교환경을 정의할 때 물리적 환경도 포함되지만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환경은 물리적 환경보다는 심리적 환경이 보다 중요하며, 있는 그대로의 환경보다는 개인이 지각한 심리적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라는 환경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시기는 또래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 학생이 폭력행위로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학교주변 불량배나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의 폭력피해와 같은 다른 학교폭력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그 폐해 또한 심각하다. 즉,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학생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접촉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폭력의 행사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래폭력의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또래폭력의 양상이 학교라는 물리적 환경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또래폭력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것이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또래폭력 연구들은 대부분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윤곽을 살피거나(박경숙・손희권, 1998; 이춘재・곽금주, 1999; 조수현, 2005), 혹은 관련요인이 되는 사회심리적 변인을 다루어 부

분적으로나마 이들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김석진, 2000; 이해경・김혜원, 2001). 또한 학교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이상균, 1999)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급간의 특성을 비교하였으나 또래폭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내에서도 학교의 환경적 특성이 학생들의 또래폭력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학교의 환경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학교의 소재위치(학구)와 관련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의 접합점으로서 또래폭력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학교급간(초등학교, 중학교)의 비교연구와 초등학교 내에서 학교의 소재위치에 따라 학교의 환경적 특징이 또래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또래폭력의 시발점인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또래폭력 특성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에 근접한 지원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의 개인 및 가족 특성, 학교생활에서 지각한 학교환경은 또래폭력 경험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의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환경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생의 개인특성, 가족특성이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또래폭력 경험(가・피해 정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폭력유형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학교에서의 폭력과 관련된 용어들은 유사한 용어들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학교폭력, 청소년 폭력, 집단따돌림, 또래폭력 등 바라보는 관점

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개념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을 중심으로 폭력을 상정한 개념이다. 집단따돌림은 개인이나 소수가 다른 개인이나 소수에게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물질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위협하기, 조롱하기, 귀찮게 굴기, 별명부르기 등의 언어적 고통을 가하거나, 때리기, 밀기, 차기 등의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고의적으로 집단에서 따돌리기, 협조를 거부하기 등의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권이종, 2000).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교내폭력, 학원폭력 등의 개념들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초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미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집단따돌림이나 광의의 개념인 학교폭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폭력의 형태가 보다 공격적이고 난폭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의 개념인 또래폭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또래폭력의 개념 및 특성

또래폭력과 관련된 광의의 개념으로는 발생장소에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을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발생장소에 있어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폭력행위로서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교내폭력으로 정의하는 입장(홍금자・이경준, 1997)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학교폭력이 학교 주변의 폭력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학교폭력은 사회의 폭력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협의의 개념으로 학교라는 환경을 중심으로 또래간에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초점을 맞춘 또래폭력은 학자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내려질 수 있는 정의이다. 예를 들어 강진령과 유형근(1999)은 “공식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이나 만족을 위해 스트레스를 유발할 의도로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반복하여 공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본용(1997)도 "특정인을 그가 속한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 연관지어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해자 측면의 개념 정의는 지나치게 문제의 양상을 확대시킨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이상균, 1999). 즉, 청소년 비행의 문제와 중첩되면서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이 사라질 수 있다.

반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또래폭력을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이춘재와 곽금주(1999)는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이에는 직접적인 폭력(능동적 공격: 구타, 폭행)과 간접적인 폭력(수동적 폭력: 소외, 심리적 배제)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이춘화(1999)는 "집단내 힘의 균형점에서 우위에 있는 자의 영향에 따라 형성된 패거리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자극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겪고 있거나 신체적인 상처와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 더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장애를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래폭력을 bullying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한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으로 정의하는 견해(Olweus, 1994)도 있다. 여기서 부정적 행동이란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의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또래폭력의 형태는 학교폭력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음 2가지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고 한다(Olweus, 1993, 이상균, 1999에서 재인용).

첫째, 행위의 반복성이다. 또래폭력행위의 반복은 일회적 폭력행위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의 반복은 학교라

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함께 생활해야 하는 아동, 청소년기에서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또래폭력의 피해·가해자간의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이다. 동일한 힘을 가진 당사자간의 폭력행위(이른바 싸움)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는 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또래 폭력은 근본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폭력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lweus(1994)의 정의에 근거하여, 반복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다 유동적으로 1회 이상 또래로부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를 받았다면 이를 또래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2. 또래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또래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서 아래와 같은 요인들에 초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이들 요인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비교적 분명한 관련성이 제기되어 왔거나, 이들 변인들과 관련된 초기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마다 일관성이 결여된 결과들을 제기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 연령 및 학교급별 차이

또래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폭넓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균, 1999; 이춘재·곽금주, 1999; 이해경·김혜원, 2000, 2001; Olweus, 1994). 연령에 따른 또래폭력의 양상을 연구하면서 Olweus(1994)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래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이해경과 김혜원(2001)은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또래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순환적으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

학교를 비교한 이상균(1999)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69.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가해경험을 하고, 67.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피해경험을 가진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각각 64.0%, 61.7%로 다 낮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경숙, 손희권(1998) 연구에서는 또래폭력의 피해경험이 중학생(26.9%), 초등학생(25.1%), 고등학생(21.3%)의 순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성별

성별에 따라 또래폭력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Olweus(1994)에 의하면 또래폭력의 경향은 여학생에게보다 남학생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춘재와 곽금주(1999) 연구에서는 가해 및 피해경험 모두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교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상균(1999) 연구에서는 피해 경험의 경우 13세까지는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4세 이후에는 여학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경험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공격성과 충동성

Bernstein과 Watson의 연구(1997)에 따르면 가해아동들이 기본적으로 충동적이고 타인에 대한 지배욕이 크며, 보호자로부터 공격적 행동을 학습받았기 때문에 또래폭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해아동들은 자신의 공격적 행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선택하며, 대개 그러한 아동은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아동을 선택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상균(1999)의 연구에서는 가해학생집단과 공격적 피해학생 집단간에 공격성이나 충동성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폭력의 피해자가 단순히 약자의 위치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피해만을 입는다는 견해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자존감

일반적으로 자존감과 폭력과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낮은 자존감이 여러 종류의 범죄와 폭력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신종순, 1991; Rigby & Slee, 1993). 반면 또래폭력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또래폭력 가해자가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춘재・곽금주, 1999; 이해경・김혜원, 2001).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처음부터 높은 자존감을 지닌 집단이 또래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집단이 피해자가 된다는 가정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오히려 집에서 학대 등으로 낮아진 자존감을 학교에서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인해 학교에서 가해행동을 수행하여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태도를 취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을 것이다.

5) 폭력문화의 허용도

부모나 교사로부터 폭력적 훈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폭력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폭력문화의 학습을 용이하게 만든다. 즉, 폭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폭력의 피해가능성과 가해가능성을 높여주며, 이러한 피해 및 가해경험은 다시 폭력에 대한 태도를 보다 허용적이게 만든다(이상균, 1999). 아울러 폭력문화에 대한 허용도는 법규의 준수와 폭력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차별접촉이론에 근거할 때 비일탈적 행동양식이 강한 사람은 일탈행위에 침전될 가능성이 적지만, 법규법의 위반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비행이나 폭력적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김준호, 1997).

6) 표적행동의 소유정도

또래폭력의 표적이 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허약함, 불안한 태도, 빈약한 대인기술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Egan & Perry, 1998). 또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며, 쉽게 울고, 굴복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포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상균, 1999). 이러한 내재화된 행동들 외에 또래폭력의 표적이 되는 학생들은 또래집단 속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정, 친사회적 기술, 유머 등의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Egan & Perry, 1998).

7)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학교환경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sen, Johnson, 그리고 Cohen(1990)은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은 학생의 자율성 허용, 학업에 대한 관심 부여, 교사-학생간의 갈등, 학생간 사회적 친목의 4차원으로 분류하였다. Williams, Stiffman, 그리고 O'Neal(1998)은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폭력행위에의 노출정도, 왜곡된 학교환경, 부정적 또래 관계 차원으로 환경요인을 분류하였다. 이상균(1999)은 사회심리적 환경을 갈등적 환경, 과업지향적 환경, 교사지지적 환경, 자율적 환경, 교칙의 공정성, 폭력 허용적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초기 청소년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지지적 환경이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격려, 지지, 소속감, 수용 등을 통한 학생간의 응집성 및 친목의 정도를 나타낸다. 학교에 대한 만족과 학교행사

에 대한 관심과 참여, 학생들간의 친목활동이 강조되는 학교환경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증대될 것이다. 둘째, 갈등적 환경이다. 이는 학생과 교사간에 부정적 관계, 학교 시설에 대한 불만, 쾌적하지 못한 학교환경에 대한 인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적 구성원간에 학교의 물리적 또는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초기 청소년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적 환경이다. 또래폭력을 비롯하여 교내에서 폭력에 대해 허용적이고 동조적인 분위기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이 또래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가 폭력에 대해 부정적일지라도 동조의 압력에 의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Ⅲ. 방 법

1. 연구 대상

2005년 4월 4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경기도의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6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초등학교는 지역적 특성이 대비되는 2개교를 선정하여 성별의 비율을 비슷하게 표집하였다. 설문지 실시에 앞서 설문 내용의 주안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성실하게 응답해줄 것을 당부하도록 하였다. 설문응답에서 중복표기나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57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심리적 학교환경 척도

사회심리적 학교환경은 학생이 지각한 학교의 환경을 측정하였다. 학교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Kasen, Johnson, 그리고 Cohen(1990)과 이상균(1999) 등이 개발하고 사용한 학교환경 척도들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항목들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사회심리적 학교환경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척도는 다음의 하위차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교사의 지지적 환경이다. 총 5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66이었다. 둘째, 갈등적 환경이다. 총 5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72였다. 셋째, 폭력허용적 환경이다. 총 5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68이었다.

2) 개인심리적 요인 척도

(1) 충동성과 공격성 척도

충동성 척도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개발한 박현선(1998)의 충동성 척도를 초기 청소년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5개 문항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척도의 신뢰도는 .78이었다. 공격성 척도는 김준호(1997), 이상균(1999)이 사용하였던 공격성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총합하여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78이었다.

(2) 자존감 척도

이상균(1999)이 사용한 자존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개 문

항으로 초기 청소년이 자기가치나 자기 수용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는 것으로, 원 연구의 신뢰도는 .87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78이었다.

(3)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및 표적특성의 소유 정도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이상균(1999)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폭력에 대한 허용정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점 리커드 척도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폭력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보는 것으로 신뢰도는 .82였다. 표적특성의 소유 정도에 대한 척도는 또래폭력의 표적학생들이 갖는 특성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Olweus(1994)의 연구를 토대로 5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68이었다.

3) 가족관련 요인 척도

가족관련 요인 척도는 부모자녀관계 척도와 가족구조 유형분류 두가지로 구성되었다. 부모자녀 관계 척도는 부모와의 유대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등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초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총 5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80이었다. 가족구조 유형은 학생들의 가족구조의 결손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양부모 가정, 편부모가정, 재혼가정, 소년소녀가정으로 구분하였다.

4) 또래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

또래폭력은 1명 이상의 다른 또래들이 학교내 또는 학교주변(등하교시)에서 피해학생에 대해 행하는 공격적이고 의도적인 가해행동이다(이상균, 1999). Olweus(1994)의 또래폭력설문지와 김준호(1997), 이상균(1999)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정도를 측정하는 각각 10

개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에서 '4회 이상'으로 4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하였고, 또래폭력의 피해 경험이나 가해 경험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해경험 척도의 신뢰도는 .76이고, 피해경험척도의 신뢰도는. 80 이었다.

3. 분석방법

또래폭력의 발생현황과 이와 관련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을 하였고, 학교의 특성, 개인적 특성, 가족환경적 특성 등이 개별학생들이 지각한 학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경험한 또래폭력의 피해경험정도와 가해경험정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원도우용 SPSS 10.1 이었다.

Ⅳ. 결 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소재의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소도시의 시장내에 위치한 학교 학생과 대도시에 안정된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학구의 학생을 비슷한 수준에서 표집하였다(각각 35.9%, 34.0%). 가족구조에서는 양부모가정 학생이 90.5%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인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은 중류라고 생각하는 학생(55.5%)이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

N= 577

요 인	항 목	빈도(%)
성 별	남	301(52.2%)
	여	276(47.8%)
학 년	초 6	403(69.8%)
	중 2	174(30.2%)
학교급별(학구)	소도시 시장학구	207(35.9%)
	대도시 아파트학구	196(34.0%)
	중학교	174(30.1%)

2. 또래폭력의 실태 및 특성 분석

또래폭력 유형별 피해실태는 <표 2>와 같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학생들이 전체아동의 48.9%에 이르고 있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맞거나 발로 차이는 등의 구타 행위로 피해를 입는 학생이 각각 26.7%, 22.1%에 이르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또래폭력 유형별 피해실태

빈도(%)

유형	1 회	2-3회	4회이상	계
친구들의 놀림	99(17.2)	70(12.1)	113(19.6)	282(48.9)
고의적인 따돌림	84(14.6)	28(4.9)	29(5.0)	141(24.5)
협박이나 위협	42(7.3)	24(4.2)	23(4.0)	87(15.5)
하기싫은 일을 강제로 시킴	52(9.0)	19(3.3)	17(2.9)	88(15.2)
돈, 물건의 갈취	40(6.9)	16(2.8)	15(2.6)	61(12.3)
등학교길을 피해다님	35(6.1)	24(4.2)	22(3.8)	81(14.1)
주먹으로 얼굴을 맞음	79(13.7)	34(5.9)	41(7.1)	154(26.7)
발로 차임	64(11.1)	35(6.1)	28(4.9)	127(22.1)
도구로 폭행	14(2.4)	13(2.3)	6(1.0)	33(5.7)
흉기로 가해	21(3.6)	4(0.7)	3(0.5)	28(4.8)

또래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가해실태를 가해유형별로 분류하여 나타난 결과는 <표 3>과 같다. 피해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구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47.2%)가 과반수에 이르며, 사례수는 작지만 그 폭력의 강도를 고려할 때 도구로 폭행하거나(4.5%), 흉기로 가해(2.9%)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 또래폭력 유형별 가해실태

빈도(%)

유형	1 회	2-3회	4회이상	계
친구들의 놀림	114(19.8)	76(13.2)	82(14.2)	272(47.2)
고의적인 따돌림	100(17.3)	30(5.2)	24(4.2)	154(26.7)
협박이나 위협	23(4.0)	14(2.4)	8(1.4)	45(7.4)
하기싫은 일을 강제로 시킴	29(5.0)	7(1.2)	11(1.9)	47(8.1)
돈, 물건의 갈취	16(2.8)	7(1.2)	7(1.2)	30(5.2)
주먹으로 얼굴을 때림	66(11.4)	27(4.7)	31(5.4)	124(21.5)
발로 참	44(7.6)	14(2.4)	19(3.3)	77(13.3)
도구로 폭행	15(2.6)	3(0.5)	8(1.4)	26(4.5)
흉기로 가해	11(1.9)	3(0.5)	3(0.5)	17(2.9)

3. 또래폭력 유형 분석

또래폭력과 관련된 학생유형을 성별 학교급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학생집단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구별로 보면 초등학교 소도시 시장학구의 경우 가해피해집단이 남녀 각각 49.6%, 42.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chi 2=7.629$, $p<.05$). 대도시 아파트학구나 중학교의 경우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4> 또래폭력 학생유형의 성별 학교급별 분포

빈도(%)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무경험집단	χ^2
소도시 시장학구	남학생	19(16.5)	15(13.0)	57(49.6)	24(20.9)	7.629*
	여학생	7(7.6)	14(15.2)	39(42.4)	32(34.8)	
대도시 아파트학구	남학생	19(19.8)	13(13.5)	33(34.4)	31(32.3)	3.816
	여학생	13(13.0)	9(9.0)	39(39.0)	39(39.0)	
중학교	남학생	8(8.9)	11(12.2)	45(50.0)	26(28.9)	6.661
	여학생	7(8.3)	12(14.3)	27(32.1)	38(45.2)	
전체(N=577)		73(12.7)	74(12.8)	240(41.6)	190(32.9)	

* p<.05

또래폭력 유형에 따라 분류된 4집단(가해, 피해, 가해피해, 무경험 집단)에 대해 충동성과 공격성의 정도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통해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는 집단간에는 충동성과 공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또래폭력 유형에 따른 공격성 및 충동성 평균비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충동성	집단간	470.77	3	156.92	13.796**
	집단내	6517.65	573	11.375	
	전체	6988.42	576		
공격성	집단간	300.66	3	100.223	7.727**
	집단내	7431.83	573	12.970	
	전체	7732.49	576		

** p<.01

집단간 차이비교를 위해 쉐페(scheffe)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공격성 및 충동성 집단차이 사후검증결과(scheffe 검증)

	충동성평균	공격성평균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무경험집단
가해집단	12.25	10.82		*		*
피해집단	10.30	9.68	*		*	
가해피해집단	12.42	10.62		(*)		*
무경험집단	11.56	9.11	*		*	

** p<.01 (*) : 충동성 요인 차이(공격성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음)

<표 6>에서와 같이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높은 충동성과 공격성을 보이며 피해집단과 무경험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폭력의 피해자가 단순히 약자의 위치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피해만 입는 것이 아니라 또래폭력의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약자에게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과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학교유형별 학교환경 인식의 차이

개별학교 간에 존재하는 학교환경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학교유형(초등 소도시 시장학구, 초등 대도시 아파트 학구, 중학교)에 따라 학교환경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학교유형별 학교환경의 차이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지지적 환경	집단간	967.70	2	483.853	63.584**
	집단내	4367.94	574	7.610	
	전체	5335.64	576		
갈등적 환경	집단간	347.42	2	173.711	28.856**
	집단내	3454.03	574	6.017	
	전체	3801.45	576		
폭력허용적 환경	집단간	201.95	2	100.978	15.372**
	집단내	3770.57	574	6.569	
	전체	3972.52	576		

** p<.01

모든 사회심리적 학교환경들은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3개 학교유형별로 사회심리적 학교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쉐페검증을 통한 구체적인 집단간 차이는 <표 8>과 같다.

<표 8> 학교환경의 차이비교 사후검증결과(scheffe 검증)

		평균값	소도시 시장학구	대도시 아파트학구	중학교
지지적 환경	소도시시장학구	14.18			*
	대도시아파트학구	13.89			*
	중학교	11.23	*	*	
갈등적 환경	소도시시장학구	11.63			*
	대도시아파트학구	11.62			*
	중학교	13.32	*	*	
폭력 허용적 환경	소도시시장학구	11.55		*	
	대도시아파트학구	10.36	*		*
	중학교	11.68		*	

** p<.0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 교사의 지지적인 환경이 더 잘 조성되고 있으며, 갈등적 환경은 중학교에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 허용적 환경에서는 같은 초등학교에서도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소도시 시장학구의 경우 중학교와 유사한 수준에서 폭력이 허용되는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5. 사회심리적 학교환경과 학생의 특성간의 관계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차이가 학교환경의 지각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9> 학교환경과 심리사회적 요인간의 상관관계

특성 요인	지지적환경	갈등적환경	폭력허용적
충동성	-.082	.317**	.252**
공격성	-.011	.158*	.009
자존감	.208**	-.089	.046
표적특성소유	-.249**	.112	.083
폭력문화의 허용도	-.273**	.222**	.223**
부모의 양육태도	.444**	-.187**	-.138
가족구조	.023	-.085	.017

* p<.05 ** p<.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동성, 공격성, 폭력문화의 허용도와 같은 부정적 특성은 갈등적이고 폭력허용적인 학교환경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존감이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같은 특성은 지지적 환경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들이 학교환경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학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 변수	지지적환경		갈등적환경		폭력허용적	
	B	ß	B	ß	B	ß
연령	-1.564*	-.236	1.022**	.436	2.229**	.469
성별	-.799*	-.131	.186	.222	.344	.239
학교유형	-.504	-.134	.292	.242	-1.063**	.261
충동성	4.282E-02	.035	.031**	.031	9.13E-02**	.033
공격성	-2.5E-02	.039	.133	.035	-3.9E-02	.037
자존감	3.76E-03	.042	4.78E-03	.038	-2.8E-02	.040
표적특성소유	-6.0E-02*	.044	4.89E-02	.039	7.66E-02	.042
폭력문화의 허용도	-6.0E-02	.039	8.10E-02*	.035	7.66E-02*	.038
부모의 양육태도	.186*	.034	-7.8E-02*	-.031	-2.6E-02	.033
가족구조	.142	.140	-.134	.126	3.18E-02	.135
경제수준	-.147	.147	191	.132	8.01E-02	.142
상 수	17.072**		8.054**		9.341**	
R^2	.279		.187		.099	
F	19.889**(df=11)		11.776**(df=11)		5.647**(df=11)	

* p<.05 ** p<.0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적 환경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은 충동성(ß=.031), 폭력문화의 허용도(ß=.035),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ß=-.031)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충동성이 높고, 폭력문화의 허용 수준이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학교환경을 갈등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또래폭력 유형집단별 영향요인

또래폭력에서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가해피해집단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또래폭력과 관련한 집단유형에 따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1> 또래폭력 유형집단별 가해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 변수	가해자 집단		가해피해 집단	
	B	ß	B	ß
연령	-.532	1.477	1.893	.717
성별	.312	.787	-.949	.320
학교유형	.808	.774	-1.221*	.358
충동성	6.67E-02	.131	.265**	.048
공격성	.158	.129	-.89E-02	.054
자존감	.219	.125	2.86E-03	.054
표적특성소유	-.123	.131	.156	.061
폭력문화의 허용도	.268	.144	.114	.054
부모의 양육태도	-6.6E-02	.116	-2.2E-02	.046
가족구조	.540	.810	.320	.151
경제수준	-.700	.462	.291	.166
지지적 환경	-2.8E-02	.133	-2.8E-02	.057
갈등적 환경	7.41E-02	.123	7.50E-02	.070
폭력 허용적 환경	-3.1E-02	.155	.131	.071
상 수	6.490		4.121	
R^2	.309		.231	
F	1.703		4.483**	

* p<.05 ** p<.0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피해 집단의 경우 학교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가해경험을 더 많이 갖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유형에 따라 가해피해집단의 가해경험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학생의 충동성이 높을수록 가해피해집단 학생들이 가해경험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폭력 유형집단별로 피해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또래폭력 유형집단별 피해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 변수	피해자 집단		가해피해 집단	
	B	ß	B	ß
연령	.143	2.175	1.036	1.467
성별	.434	.971	-2.166**	.764
학교유형	-.484	1.085	-1.423	.805
충동성	-4.3E-02	.147	.160	.107
공격성	.105	.163	.111	.106
자존감	-.208	.162	-.220	.119
표적특성소유	.470*	.184	-1.0E-02	.129
폭력문화의 허용도	-1.8E-02	.165	-3.9E-03	.105
부모의 양육태도	-1.9E-02	.139	-1.8E-02	.100
가족구조	-6.1E-02	.458	.434	.396
경제수준	.443	.503	.278	.453
지지적 환경	1.99E-02	.173	-2.8E-03	.130
갈등적 환경	.194	.212	.219	.153
폭력 허용적 환경	-6.4E-02	.215	.300*	.132
상 수	19.301**		15.582**	
R^2	.208		.190	
F	1.018		3.497**	

* p<.05 ** p<.01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피해자 집단의 경우 표적특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또래폭력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가해피해 집단의 경우 피해경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피해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폭력 허용적 환경도 가해피해집단의 피해경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Ⅴ.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또래폭력에 대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가족, 또래, 학교라는 환경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전반에 걸쳐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심리적 학교환경이 직·간접적으로 또래폭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학교환경과 학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미한 형태의 놀림이나 따돌림과 같은 또래폭력을 당한 경우와 가해한 경우가 각각 48.9%, 47.2%로 반정도의 아동이 또래폭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폭력의 형태가 신체가해, 협박, 물건 뺏기와 같은 심각성이 더한 경우에는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맞거나 발로 차이는 경우도 20%를 상회하고 있어 물리적인 폭력이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래폭력의 유형별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 소도시 시장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가해 및 피해집단(남 49.6%, 여 42.4%)에 속한 학생이 대도시 아파트 지역의 학생(남 34.4%, 여 3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가해집단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감소되고 있지만 가해피해집단의 남

학생의 경우에는 비율이 50.0%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해피해집단의 학생이 32.1%로 줄어들고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학생은 오히려 또래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지만, 여학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박경숙・손희권, 1998; 이상균, 1999; 이춘재・곽금주, 1999; 이해경・김혜원, 2001; Olweus, 1994)들이 그 발생빈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또래폭력의 측정기간과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혜원・이해경(2000)의 연구와 이해경・김혜원(2001)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가해피해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발생빈도와 또래폭력의 심각성 혹은 집요함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추후연구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유형별로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들에 비해 학교가 보다 더 지지적이며, 덜 갈등적인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폭력 허용적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는 초등학교 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학구가 열악한 소도시 시장학구의 경우 폭력이 보다 더 허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균(1999)의 연구에서 인문고가 중학교나 실업고보다 폭력허용정도가 낮은 것에서 시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가정 환경적 수준과 그와 연관된 소재 학구에 따라 폭력노출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생들이 지각하는 상이한 학교환경은 일정정도 학생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충동성, 공격성 등과 같은 개인의 부정적인 특성이 강할수록, 폭력에 대한 허용정도가 높을수록 학교환경에 대해 보다 갈등적이고 폭력 허용적인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에 대한 유대감과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소유한 학생일수록 학교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상균(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또래폭력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또래폭력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유형 요인과 충동성 요인이었다. 피해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피해자의 경우 표적특성소유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가해피해집단의 경우에는 성별과 학교환경에서 폭력허용적 환경과 관련이 있었다. 가해행동에 있어서 학교유형별 차이와 학구로 표현되는 학교의 수준의 차이로 인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변환경과 가정의 가정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도시 시장학구의 경우 가해피해경험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교급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학교의 소재지역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또래폭력 현상을 학교환경과 학구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또래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연구자의 선택에 의해 한정된 변인들만 다루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초등학교의 경우 소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집하였으나, 중학교의 경우 표집의 곤란도로 인해 1개교만 표집하여 학구간 특성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인지적 발달단계와 경험 강도의 차이로 인해 두 집단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지적인 발달단계와 경험수준을 고려한 설문문항 제작과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진령・유형근 (1999). 집단따돌림의 진단 및 치료방안. 서울: 학지사.

구본용 (199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대화의 광장.

권이종 (2000). 학교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내의 폭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 7권 제 2호, pp. 1-37.

김석진 (2000).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와 관련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 11권 제 1호, pp. 111-142.

김준호 (1997). 한국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김혜원・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 14권 제 1호, pp. 45-64.

박경숙・손희권 (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종순 (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춘재・곽금주 (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이춘화 (1999). 집단따돌림 예방 및 지도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이해경・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

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 15권 제 1호, pp. 1-22.

조수현 (2005). 초등학생 또래폭력 가해·피해집단의 학교적응과 또래 폭력에 대한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서울: 한울림.

홍금자·이경준 (1997). 학교폭력의 실정과 학교사회사업가의 개입. 학교사회사업, 창간호, pp. 61-92.

매일경제 2005. 4. 30일자 인터넷기사 : 스쿨폴리스 첫 출범.

연합뉴스 2005. 4. 6일자 기사 : 학교폭력 피해-가해자, 여학생이 더 많아.

Bernstein, J. Y., & Watson, M. W. (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pp. 493-498.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pp. 299-309.

Kasen, S., Johnson, J., & Cohen, P. (1990). The impact of school emotional climate on student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2)*, pp. 165-177.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5,* pp. 1171-1190.

Rigby, K. & Slee, P. T. (1993).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 pp. 615-627.

Williams, J. H., Stiffman, A. R., & O'Neal, J. L. (1998). Violence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youths: An analysis of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risk factors. *Social Work Research, 22(1)*, pp. 3-13.

ABSTRACT

Influencing Factors of Bullying of Early Youths : Based on School Climate and District

Kim, Kyong-Jip*

This study tried to explore how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and familial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school climates affected bullying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577 students in the 6th and 8th grade from six different schools in Kyu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Results showed that 1) 48.9% of the students were victims of bullying while 41.6% of the students were either bullies or students being bullied reflecting that schools may be the place wherein one can experience and learn violence. 2) Individual psychological traits, familial structure, and school climate ar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 bullying especially on the impulsiveness and aggressiveness of an individual.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school climate by the level of school and district. Students who lived in apartment complexes in big cities were less likely to perceive violence-permissive climates than students who lived in market school districts. 4) Impulsiveness and school level differently affected bullying behaviors and, target characteristics and violence-permissive climate were most important in explaining the victim's behavi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the prevention and proper guidance variables related with student's bullying behaviors were proposed.

Key words : school violence, bullying, school climate, school district

투고일 : 5월 2일, 심사일 : 6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

* Yonsei University